

# 남을 원망 말고 주인공에게 모든걸 일임시켜버리세요

25면에서 계속

졌다는 얘깁니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살자고 그냥 그 고을 안을 벗어나서 어느 나무 밑에가 앉아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얘깁니다. 세상에, 자기도 죽을까 봐 뛰어나와 보니 그 사람네들 하나도 어떻게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아는 게 많아도 끔찍할 못했던 얘깁니다. 그러니 여직껏 배우고 여직껏 강의한 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래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강당을 다 해체를 시켰단 얘깁니다. 그리고 책도 다 태우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는 견성이 내면세계를 발견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견성을 해 가지고도 거기다 다시 공부 놓지 않는다면 다시 미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해지느냐? 흠여지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견성했다고 운룡 자기라고 내세웠을 때 벌써 착이 불교 욕심이 불교 아만이 생기고 이런다면 삼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견성을 했어도 그래서 다시 못쳐 보야 돌아 아닌 도리를 그때 흠여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해야 하고 다음에 열반경지에 들어서서 자유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돌이 아니게 나뭇 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그 원 하나 탁 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겁니다. 봉우리 하나 탁 올려놓는, 그 돈오다 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돈오라고 이름을 해서 돈오지 그걸 어떻게 돈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경지에.

그러니 이 죽은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접하는 때라 견성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대의정이 생기고 그때에 시공이 초월된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철나철나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돌이 아닌 도리 배울 때.

그러니까 나 하나의 마음이 수천수만의 입자로 인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 화신으로 화해서 이 텅 구멍을 통해 들고 나면서 그냥 전부 그 응신이 돼 주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모두가 보살 아닌 게 없고 또 나 아님이 없고 이 도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 도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죽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혼도 보이는 영혼도, 또는 생각이 없는 영혼도 생각이 있는 영혼도 모두가 그냥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광대한, 뭐라고 말할 해야 할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철나철나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한마음이 이 우주를 전체 덮고 전체 굴리고 전체 덮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갈라서 뭐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를 붙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돈오가 홀으니 절수가 홀으니 이리한다 건 그런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 성격이 잘못됐을 잘 따지는 편인데...

☞ 저는 본래 성격이 잘못됐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살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런 걸 따진다면 벌써 이거는 이 공부 하는데 광입니다. 내가 항상 그렇습니다. 남편과 또는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 은둔 나쁜 짓은 있는 대로 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단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찌겠습니까, 배우는 시기에 배워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나무라지 말고 주인공에 맡겨라 이겁니다. 그건 당신의 입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부드럽게 해 주고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애! 너 어디로 그렇게 다녔니? 배고프지 않았니? 잠은 어떻게, 좁게나 자기 않았니?"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배고픈데 어서 밥 먹어라! 내 차려 줄게." 하고선 이렇게 좋고 부드러운 말을 따뜻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되는 거, 잘못 되게 한 거는 주인공 공에 다 맡기시구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 잘못하고 이런 거 몰라? 몰라?" 그러면, 반발심이 생겨서 더 말을 안 들립니다. 번연히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바로 이끌어 가지고 가는 데는 그 자비성이 거기에 깃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데 무슨 자비야?' 이러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다 맡기시고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신랑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주 나쁘고 두들겨패기만 하고 술 먹고 주정을 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술도 안 먹고 그냥 "내가 당신을 왜 그렇게 들볶았지?" 이러고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니까 "아이고, 스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스님..." 이라고는 말을 잊지 못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즐겁죠. 그렇게 즐겁게 살지 왜 그렇게 그냥 부리고 살니까?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죽어서 천당일 가려고 내가 믿습니까? 죽어서 이 몸뚱이가 없으니까 부딪칠 게 없어 이 공부도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 보세요. 그렇게 경우를 따

지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복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셔야죠. 안 그러니까요?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면

☞ 예전에 아틀란티스문명이란 것이 있었는데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물질로만 치달았다가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도시와 섬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니 말입니다. 스님,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요?

☞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먹고, 꽃값처럼 씹어 놓은 거를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살

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말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등, 십 년이 흘렀다는 등, 삼 년이 흘렀다는 등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 면서도 그 속에 지금 은하계를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틀이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혹성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전세계의 설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 대전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좌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뜨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 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갔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가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가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느냐가 말입니다. 그래서 좌편보다는 승천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

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속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법바퀴를 굴러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불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술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돌이 아니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게 됩니다.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많지만 주인공은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과거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깐 그만이지. 꿈이나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날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비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여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꼭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헛바퀴 돌듯하다가 천 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 년 만에도 바꿀 수 있고 삼 년 만에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차원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러 다 굴릴 수 있어야,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 이 안에서부터 모든 단속을 해야

### 바람이나 별레나 도둑이 들지 않지

### 안에서 단속을 안 하고 집을 비워 둔다면

###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게 없을 때 어떡해야 할까요? 하기가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돌이 된다면 또 파먹을 게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무의 공나를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 그대대 대전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대대 만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월가월부하면서 서로가 울지 않다고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리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空)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전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을,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

## 전통범음범패 (바라, 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패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랑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중사이운, 중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범운 스님, 이현진 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학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중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중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염주세트

38,500 →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정품 : 희담석합장주 1개 (시중가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담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